

2020년 8월 2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다우 30 편출입 효과로 나스닥 상승 지속 세일즈포스, 암젠, 허니웰 편입 Vs. 엑손모빌, 화이자, 레이스온 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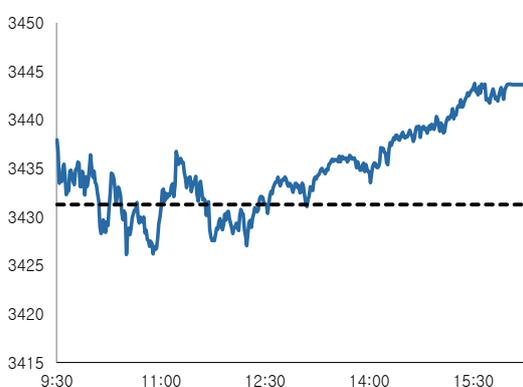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기술주 강세 Vs. 에너지 업종 부진

미 증시는 부진한 소비심리지표 및 애플 등 최근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특히 다우 30 편출입 소식에 에너지는 부진하고 기술주는 강세를 보이는 등 관련 업종들의 엇갈린 반응이 특징. 대체로 시장은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이러한 업종별 특징으로 나스닥은 강세를 다우는 약세를 보임(다우 -0.21%, 나스닥 +0.76%, S&P500 +0.36%, 러셀 2000 +0.17%)

8 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91.7)은 물론 예상(93.0)을 크게 하회한 84.8 로 발표되는 등 소비심리지표 부진으로 매출 출회. 코로나 재확산과 고용불안, 신규 부양책 지연 등으로 지표가 6 년내 최저 기록한 것인데 지난 팬더믹 때보다 더 낮은 상태(4 월 86.9). 특히 35 세 미만의 젊은층의 신뢰도가 20.6 이나 감소한 점이 특징.接客업체 파트타임 고용이 증가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 한편, 역사적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계획은 전월 7.7%에서 5.9%로 감소. 자동차 구입도 12.5%에서 9.7%로 둔화

한편, 다우 30 편출입의 영향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 업종은 부진. 가장 최근 편출입은 2015 년 3 월 18 일 애플이었는데 이번에 주식분할을 이유로 기술주의 영향력이 축소되자 1928 년 편입되어 가장 오래된 엑손모빌(-3.15%)이 편출되고 대신에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3.64%)가 편입. 알파벳(+1.31%)이나 아마존(+1.18%)이 아닌 이유는 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 이는 지난 2014 년 애플이 7:1 주식분할 하며 다우에 포함 되었듯 주식분할 기대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 페이스북(+3.47%)은 주가가 세일즈포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 투자외견 상향 조정과 향후 다우 지수 편입 기대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 바이오 업종인 암젠(+5.37%)은 제약업종인 화이자(-1.11%) 대신, 허니웰(+3.24%)은 군수업종인 레이스온(-1.50%) 대신 편출입되며 엇갈린 양상. 대체로 미국 경제에 기술주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조치였고 이 결과 나스닥이 상승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1.58	2,366.73	홍콩	25,486.22	-0.26	향성	
KOSDAQ	+2.52	836.31	영국	6,037.01	-1.11		
DOW	-0.21	28,248.44	독일	13,061.62	-0.04		
NASDAQ	+0.76	11,466.47	프랑스	5,008.27	+0.01		
S&P 500	+0.36	3,443.62	스페인	7,108.40	-0.01		
상하이종합	-0.36	3,373.58	그리스	629.34	-0.51		
일본	+1.35	23,296.77	이탈리아	20,030.05	-0.4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부진 Vs. 기술주 강세

애플(-0.82%)은 4:1 주식분할 기일이 지난 후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테슬라(+0.45%)는 장 후반 반등에 성공했다. 베스트바이(-4.03%)는 양호한 실적 발표 불구하고 강력한 판매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한편, 다우 30 편출입 기업들인 엑손모빌(-3.17%), 화이자(-1.11%), 레이시온(-1.50%)은 부진했으나 세일즈포스(+3.64%), 암젠(+5.37%), 하니웰(+3.24%)은 상승했다. 특히 1928년 이후 처음으로 다우30에서 빠진 엑손모빌 여파로 에너지 기업들은 부진했다. 알파벳(+1.31%), 아마존(+1.18%) 등은 세일즈포스 편입 효과로 강세를 보였다. 세일즈포스는 시간 외로 양호한 실적 발표후 10% 넘게 급등하고 있다.

페이스북(+3.47%)은 전자상거래 부문 성장을 이유로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자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3.06%)은 새로운 SSD칩 발표를 기반으로 강세를 보였다. 의료기기 업체 메트로닉스(+2.46%)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했다. 스타벅스(+5.13%)는 내년 견고한 실적을 이유로, L브랜드(+3.34%)는 빅토리아 시크릿 판매 증가 기대로 투자자의견이 상향 조정되자 상승했다. 갭(+10.39%)도 주주가치 개선 시사에 따른 투자자의견이 상향 조정되자 급등했다. 치포솔멕시칸그릴(+2.25%)은 모바일 주문 급증으로 수익 개선이 기대 된다며 목표주가 상향조정에 기대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45%	대형 가치주 ETF(IVE)	-0.10%
에너지섹터 ETF(OIH)	-0.93%	중형 가치주 ETF(IWS)	-0.16%
소매업체 ETF(XRT)	-0.47%	소형 가치주 ETF(IWN)	-0.28%
금융섹터 ETF(XLF)	+0.28%	대형 성장주 ETF(VUG)	+0.73%
기술섹터 ETF(XLK)	+0.50%	중형 성장주 ETF(IWP)	+0.4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49%	소형 성장주 ETF(IWO)	+0.50%
인터넷업체 ETF(FDN)	+0.88%	배당주 ETF(DVY)	-0.61%
리츠업체 ETF(XLRE)	+0.3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6%
주택건설업체 ETF(XHB)	-0.5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1%
바이오섹터 ETF(IBB)	+1.53%	미국 국채 ETF(IEF)	-0.24%
헬스케어 ETF(XLV)	+0.68%	하이일드 ETF(JNK)	+0.17%
곡물 ETF(DBA)	+1.47%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1.13%	Long/short ETF(BTAL)	-0.1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72.94	-1.42%	-2.62%	-2.43%
소재	394.39	-0.32%	+0.10%	+2.80%
산업재	655.54	-0.09%	+1.22%	+8.31%
경기소비재	1,236.56	+0.53%	+1.57%	+10.56%
필수소비재	662.73	-0.13%	-0.02%	+3.25%
헬스케어	1,245.11	+0.70%	-0.39%	+1.09%
금융	413.65	+0.27%	+1.33%	+3.81%
IT	2,100.18	+0.52%	+3.82%	+13.09%
커뮤니케이션	204.38	+0.97%	+2.58%	+8.63%
유틸리티	300.45	-0.92%	-1.07%	-2.20%
부동산	223.48	+0.31%	-0.17%	+0.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9%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01%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7.4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27 일)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다우 30 편출입 효과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상승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 되었다. 다만 이는 전일 이미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던 점을 감안 오늘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팬더믹 당시였던 4 월 86.9 보다 낮은 84.8 로 발표되는 등 부진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자동차 구매 심리가 낮아져 관련 종목의 부진이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전일 정부는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하면 3 단계 거리두기”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2 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중이지만 역부족이라며 위험도 평가등을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 이를 감안 오늘 또한 10 시에 발표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이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온건한 통화정책 시사 등을 감안 목요일 금통위에 대한 기대도 있어 부담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판매 급증 Vs. 소비심리 지표 둔화

8 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91.7)이나 예상(93.0)을 크게 하회한 84.8 로 발표되었다. 현재 여건지수도 전월(95.9)보다 크게 낮아진 84.2 로 발표되었으며 기대 지수 또한 전월(88.9) 보다 부진한 85.2 로 발표되었다.

7 월 미국 신규주택판매 건수가 전월(79.1 만건)이나 예상(77.4 만건)을 크게 상회한 90.1 만 건을 기록했다. 판매 평균 가격은 전월 30 만 8,300 달러 보다 상승한 33 만 600 달러를 기록했다.

8 월 리치몬드 연은 지수는 전월과 예상치인 10 을 크게 상회한 18 로 발표되었으며 신규수주가 9에서 15로 상향 조정된 점이 이를 이끌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허리케인 여파로 상승

국제유가는 소비자신뢰지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 및 허리케인 영향으로 상승했다. 특히 허리케인이 해양시추시설이 모여 있는 멕시코만을 강타하며 관련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이는 미국 공급 감소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더 나아가 미-중 무역 마찰 완화 가능성과 이행에 대한 기대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유로화가 독일 GDP 성장을 둔화가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러시아 루블화는 정치 불확실성으로 달러 대비 1% 약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상승했다. 소비자 신뢰지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판매 급증 등의 영향도 있었다. 한편,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가 3만 7천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안정을 찾은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시장은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에서 '평균 인플레이션' 정책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물의 상승은 제한된 점도 특징이다.

금은 달러 약세 불구 미-중 완화 기대 속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기반해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8% 철근은 0.50%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3.35	+1.71	+0.53	Dollar Index	93.018	-0.30	+0.81
브렌트유	45.86	+1.62	+0.88	EUR/USD	1.1834	+0.39	-0.81
금	1,923.10	-0.83	-4.47	USD/JPY	106.37	+0.37	+0.91
은	26.426	-1.28	-6.43	GBP/USD	1.3146	+0.64	-0.70
알루미늄	1,775.50	+0.28	+0.11	USD/CHF	0.9075	-0.48	+0.41
전기동	6,529.00	+0.20	-0.59	AUD/USD	0.7195	+0.45	-0.66
아연	2,482.00	+1.49	+0.96	USD/CAD	1.3173	-0.34	+0.04
옥수수	354.50	+2.75	+3.73	USD/BRL	5.5198	-1.64	+0.95
밀	535.50	+1.47	+3.48	USD/CNH	6.9041	-0.12	-0.03
대두	920.25	+1.60	+0.71	USD/KRW	1185.10	-0.34	+0.12
커피	122.95	+2.33	+1.57	USD/KRW NDF1M	1187.48	-0.13	+0.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85	+3.09	+1.64	스페인	0.295	+0.70	-5.90
한국	1.387	+0.50	+3.50	포르투갈	0.325	+0.30	-4.30
일본	0.035	+0.80	-0.40	그리스	1.087	+0.10	-3.80
독일	-0.431	+6.00	+3.20	이탈리아	0.943	+3.00	-4.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